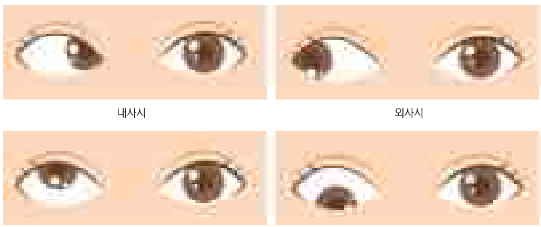
"어린이 사시, 조기 교정하세요"

시력발달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소아시기에 눈이 잘 발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평생 시력이 좌우되기도 하고, 시력장애로 인해 학습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사시 여부를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앙래 보라안과병원 원장의 도움으로 어린이 사시 조기발견과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눈동자 근육 이상 등 원인…시력발달 저해·융합력 상실 문제

눈 돌아가거나 햇빛에 과민한 반응…증상 보일 땐 전문의 진료

사시란 두 눈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떤 물체를 주시할 때, 한 쪽 눈의 시선은 그 물체를 향해 있지만 다른 눈은 그렇지 못한 경우다.

이러한 사시는 어린이 100명 중 2~3명에서 나타나며, 시력이나 입체시 같은 시각적 기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막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큰 물체 정도를 알아보는 정도의 시력이지만, 이후 계속 발달하게 되어 만 6세면 정상 성인 시력 1.0에 이르게 되는데, 사시는 어린이의 시력발달을 저해하고, 두 눈에 들어온 물체의 상을 입체적인 하나의 물체로 인식하게 되는 융합력을 상실케 하는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또 시선이 똑바르지 않은 미용적인 문제들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와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사시 어린이의 부모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시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외안근) 이상, 신경마비 등의 뇌 이상, 양쪽 눈 시력이 차이나는 짝눈인 경우, 선천성 백내장, 각막혼탁, 망막이상 등으로 약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유전적 성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흔한 간헐성 외사시는 대부분 2~3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평소 증상이 없다가 피곤하거나 아플 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등 짧은 시간 동안 눈이 돌아간다. 고개를 돌려서 보거나, 햇빛에 과민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자녀들이 시력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소아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외안근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 사시가 발생하는데, 줄다리기 하다가 한 쪽 힘이 더 세지면 그쪽으로 끌려가듯이 힘이 더 센 외안근의 작용방향으로 눈이 돌아가게 된다.

눈이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안쪽으로 몰리면 내사시, 바깥쪽과 귀쪽으로 돌아가면 외사시, 위쪽이나 아래로 돌아가면 각각 상사시, 하사시라고 한다.

시력 기능은 생후 3~4개월부터 발달하기 시작해 만 10세가 되면 완성되는데, 이 기간에 시 기능 및 시력 발달이 사시 등의 질환들에 의해 쉽게 방해를 받아 약시를 초래하고 입체시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현재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하의 소아는 수술 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마앙래 보라안과병원 원장은 "어린이 사시는 부모가 관심을 갖고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시력 발달시기인 3세 이후에 연 2회 정도 소아안과 전문의를 찾아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도움말=마앙래 원장
보라안과병원

어린이 시력이상 자가진단

- 생후 3개월 후에도 눈을 못 마주치지 못한다
- 한쪽 눈을 가리면 보채거나 짜증을 낸다
- 잘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부딪힌다
- TV나 책을 아주 가까이 본다
- 눈을 자주 찌푸리고 비비며 깜빡인다
- 특별한 원인 없이 짜증 못하고 산만하다
- 정면으로 눈을 마주칠 때 눈동자가 좌우대칭이 안된다
- 가족 중 시력이상이나 안과질환이 있다
- 햇빛에 민감해 눈 부셔 한다
- 강한 빛에 눈을 깜박거리지 않는다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복지부 운영사업평가 '최우수'

올해 총 10억원 국고 지원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주한·사진)가 전국 최우수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됐다.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1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도 예산교부를 위한 2016년도 운영사업실적평가와 2017년도 운영사업계획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올해 인센티브 1억원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산하 심혈관센터·뇌혈관센터·재활센터·예방센터에 대해 구조(조직·인력·시설·장비·정보체계), 과정(운영·진료), 결과 부분 등 3개 부문으로 각각 나눠 시행됐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2015년 후속사업 계획 평가에서 1위를 받았다.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주·전남지역의 급성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24시간 당직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진료 및 조기재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주임상경로개발 및 보급사업, 취약지 지원사업, 뇌졸중 재활환자 연계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심방세동의 환자를 사전에 찾기 위해 모바일을 이용한 간이 심전도검사와 심방세동 홍보사업 그리고 뇌졸중 퇴원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1개 권역의 지방대학병원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해 설치 사업비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대장암, 50~70대 발병률 80% 차지

서구·고령화로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이 주요 발병 요인으로 지적되는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게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이다. 2014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위암·폐암 다음, 여성은 갑상선암·유방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많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대장암에 따른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6.4명으로, 폐암(34.1명), 간암(22.2명), 위암(16.7명) 다음으로 많았다.

대장암은 육류 섭취를 즐기는 서양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암이었으나, 국내에서도 서구식 식습관이 확산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가 급증했다.

2002년 국내 대장암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20.3명으로 38.9명인 미국보다 훨씬 적었지만, 2008년 35.2명으로 늘면서 미국(29.2명)보다 오히려 많아졌다. 2012년에는 한국 45명, 미국 25명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최근 환자 수(건강보험 기준)도 2012년 13만명에서 2016년 15만명으로 약 16% 늘었다. 지난 해 환자는 남성이 9만명, 여성이 6만명이었다.

대장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심평원은 2012년부터 의료기관의 대장암 치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15년 이뤄진 5차 평가에서 원발성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만18세 이상 환자 1만7355건을 분석한 결과, 환자는 남성(59.2%)이 여성(40.8%)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9.4%, 60대가 27.6%, 50대가 22.4%로 전체 환자의 79.4%를 차지했다.

대장암 수술 환자가 발생한 252개 기관 중 전문인력, 수술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종합점수 산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134개로, 이 중 119곳(88.9%)이 1등급을 받았고 상급종합병원 43곳은 모두 1등급에 속했다.

2등급은 8곳(6%), 3등급은 5곳(3.7%), 4등급과 5등급이 각각 1곳(0.7%)이었다. 1등급 병원은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했고, 특히 서울(37곳)과 강원(5곳), 제주(3곳)의 병원은 모두 1등급에 속했다. 연합뉴스

청연한방병원, 양재진 원장 초청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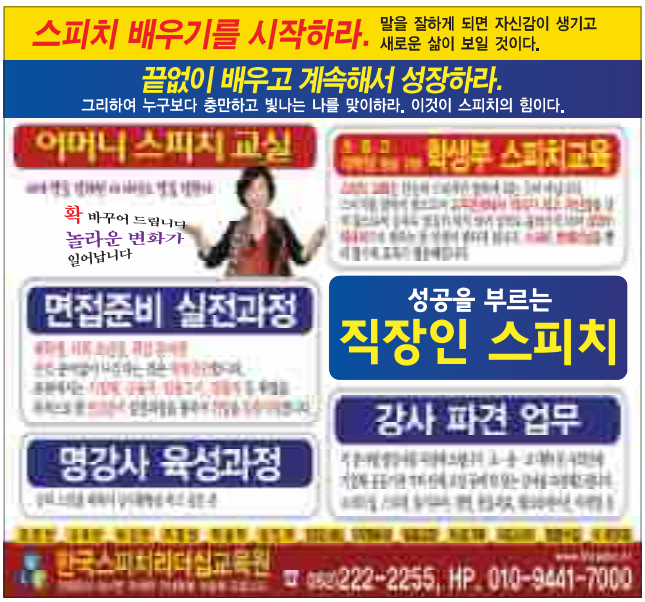
'스트레스 그리고 나' 주제…22일 DJ센터서 열려

청연한방병원은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3홀에서 '힐링닥터'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원장을 초청해 '스트레스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선착순 200명까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강사로 초빙된 양 원장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케이블 채널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어쩌다 어른'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으며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의 책을 펴냈다.

양 원장은 이번 강의에서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반인격 성격 △알코올중독 △자아성찰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청연은 이번 강의에 앞서 사전행사로 VR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영 대표원장은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처럼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삶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